

- 개인과 사회 -

역사, 경제, 정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할 때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 개인과 사회가 잘 공존하면 좋은 데, 그렇지 않고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대립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대립된다면 어쨌든 개인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개인주의라고 한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허구라고 생각한다.
- 반면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대립한다면 당연히 사회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견해를 집단주의라 한다. 이들은 사회가 허구가 아니라 실체라고 생각한다. 사회는 실제로 개인에게 혹은 다른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개인의 의미는 사회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이기주의와 전체주의 -

전체주의는 개인이 비윤리적 행위에 눈감게 한다

-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극단화되었을 때 부정적인 측면을 일으킨다. 개인주의가 극단화되면 이기주의가 되고, 집단주의가 극단화되면 전체주의가 된다.
 - 이기주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는 개인의 이기적 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힘과 시스템을 갖췄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주의다. 국가나 사회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개인을 희생시키려고 마음먹으면 개인은 도저히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 전체주의는 개인의 존재가치를 절하하고, 집단과 전체의 가치를 앞세운다. 전체주의는 독립적으로 기생하는 하나의 이념이라기 보다는, 사실 경제 위기가 발생시키는 하나의 병리현상으로 보인다. 전체는 나의 이익을 위해 강력하게 행동하지만, 나에게서는 책임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가 전체주의다. 전체주의는 개인이 전체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눈감게 한다.

- 자연권 -

전체주의에서 개인을 구하는 법

- 자연권은 천부적 권리, 즉 하늘이 부여해준 권리로서 국가라 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며 배타적 권리이다. 어쨌거나 이렇게 모호한 초월적 권위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영향력이 없지만, 자연권은 그나마 전체의 폭력에 대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연권으로 생명, 재산, 자유가 대표적이다.

- 전체주의와 세금 -

부유층의 세금을 높이는 것은 전체주의적 폭력인가

- 일반적으로 진보는 보수에 비해 윤리적 측면에서 더 지지를 받는다. 왜냐하면 진보가 고려하는 대상 자체가 노동자, 서민, 최소수혜자 등 자본가에 비해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다.

약자를 고려하는 담론은 대부분 윤리적 토대에서 근거를 보장 받는다.

- 세금은 재산권, 즉 개인의 자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게다가 현재의 세금제도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과세이니, 다수의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부유층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주장한다. 자본가가 부를 축적한 것은 노력이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었다. 어쨌거나 생산수단을 독점함으로써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들의 시간과 노력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닌가?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들은 이미 경쟁 우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들이 축적한 부는 불로소득이고 사회적 환원의 의무가 있다.

- 미디어의 말 -

미디어는 어떻게 거짓을 말하는가

- 미디어는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미디어가 객관적인 진실을 말해준다고 의심 없이 신뢰한다.

- 언어나 말에 대한 탐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의미론이고, 다른 하나는 화용론이다. 의미론은 내가 내뱉은 말 자체의 내용과 의미를 탐구한다. 화용론은 내가 내 뱉은 말이 왜 하필 그 시간, 그 공간 그 주체와 대상 가운데서 말해졌는가를 파악하려 한다.

문제는 힘 없는 개인이 화용론을 구사할 때가 아니라 미디어나 정부, 국가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주체가 대중을 대상으로 세련되게 화용론을 구사할 때 발생한다.

- 미디어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미디어가 틀린 정보를 보도한다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다. 언론과 방송은 의미론 측면에서 거짓을 말하는 경우는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화용론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디어는 편집과 보도 순서의 배열을 고려하는 등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직접 말하지는 않아도 맥락을 통해 주관적 사고와 이념을 전달한다.

- 미디어는 권력자의 사고와 이념을 전달한다. 따라서 미디어는 정부의 사고와 이념을 포장해서 대중에게 전달한다. 이때 미디어는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여 정보의 왜곡, 통제를 빈번하게 일으키고, 언어적 측면에서 화용론을 넘어 의미론적 측면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의 주관적 보도를 수행한다.

- 민주주의 체제에서 미디어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것은 미디어의 생존 방식과 직결되어 있다. 미디어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무료로 송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광고 때문이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언어철학자인 동시에 사회 정치적 실천가인 노암 촘스키는 “신문과 방송이 광고주인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사기업들은 광고로 언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잘못된 이익의 먹이사슬이 형성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미디어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미디어는 끊임없이 보수화되고, 신자유주의를 옹호한다.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디어는 의미론적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어렵다. 그들은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하며, 대중의 감시 속에 사실을 전달한다. 다만 화용론적 측면에서 객관성은 상실되고, 보수의 이념과 사고가 암묵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 문제는 대중에게 있다. 대중은 정직하고 순박해서, 미디어와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만이 진짜 사실이라 믿고, 그들이 자신을 속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디어가 보여주는 세계 이면에 대해 의심하는 행위를 무가치하고 반사회적인 행위인 양 거부한다.

하지만 단적으로 말해서 당신의 삶이 현재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미디어가 재벌기업과 스포츠 스타를 칭찬하고 열광하는 모습을 방영한다고 해서 그 열광을 앵무새처럼 따라 할 필요는 없다.